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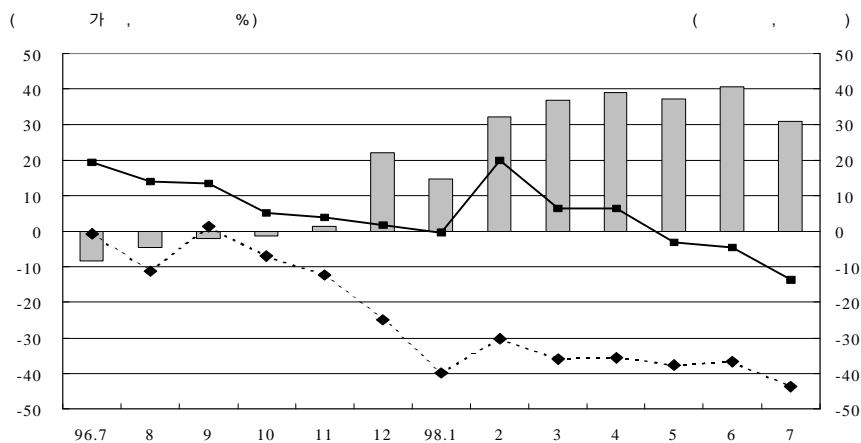
2. 3개월 연속 수출 감소

- (동향) 수출이 5월에 감소세로 반전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, 감소폭도 점차 커지고 있음
- (원인)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고 각국이 수출 확대형 경제 회복 전략을 택한 데 있음. 또 아시아와 같은 채무 불이행 위험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
- (전망) 수출 시장이 위축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등 당분간 대외적 수출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보임

□ 동향

- 2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은 대내외적인 수출 여건의 악화에 따라 5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음
 - 2~4월중에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이 5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, 7월에는 수출 증가율이 -13.7%로 13년 6개월만의 최저치를 보였음
 - 수출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

< 최근 수출입 동향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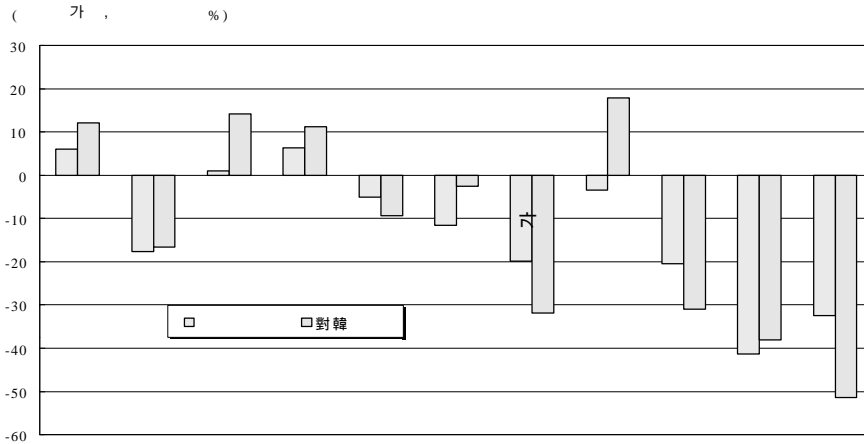
- 수출 감소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집중되고 있으며, 지역별로는 개도국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
 - 반도체, 자동차, 섬유식품 등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가 심각함

-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지역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,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수출은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
□ 수출 감소의 원인

- 수출 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은 범세계적 차원의 수요 감소에 있음
 - 작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점차 전세계적으로 파급되면서 각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, 이로 인해 각국의 수입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
 - 그림에서 보듯 수입 감소는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범세계적인 현상이며, 이러한 수요 감소가 우리 수출의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
- 그러나 내적인 수출 제약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미국과 영국 등은 對韓 수입 실적이 전체 수입 증가율보다 높지만,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세안 지역의 對韓 수입은 전체 수입에 비해 부진한 경향이 있음
 - 이들 채무 불이행 위험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 무역 금융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점이 이들 국가의 對韓 수입 부진 원인의 하나일 것으로 보임

<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입 동향>



주 : 일본, 대만은 상반기, 미국, 홍콩, 중국, 싱가폴은 5월까지, 영국, 말레이시아, 태국은 4월까지, 인도네시아는 3월까지의 실적임

- 반면, 최근 원화 가치 상승이 수출 감소의 주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음
 - 태국 바트화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통화가 원화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절하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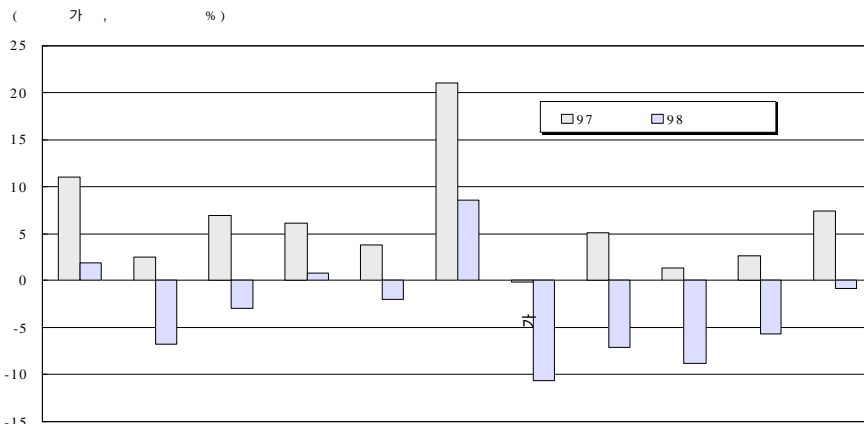
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출이 우리나라에 비해 더 심각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

-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수요 이동보다는 수요 감소에 의한 것임을 의미

□ 전망 및 과제

- 향후 수출의 회복 가능성은 현재 악화되어 있는 대내외적 수출 환경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음
 - 수출 감소의 주원인인 세계 수요 감소가 단기간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
 - 특히 경제위기로 수요가 크게 감소한 아시아 각국이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러한 각국의 노력은 수출 확대보다는 상대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. 또 수출의 감소는 심각한 경제 침체를 통해 수입 수요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
 -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

< 각국의 수출 추이 >



주 : 일본, 대만은 상반기, 미국, 홍콩, 중국, 싱가포르 5월까지, 영국, 말레이시아, 태국은 4월까지, 인도네시아는 3월까지의 실적임

- 대외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부적인 수출 애로 개선 방법이 필요하나 큰 기대는 어려운 실정임
 - 동남아에 대한 수출은 무역 금융의 확대로 일부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, 획기적으로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

(전 민 규 mkjun@hri.co.kr ☎724-4015)